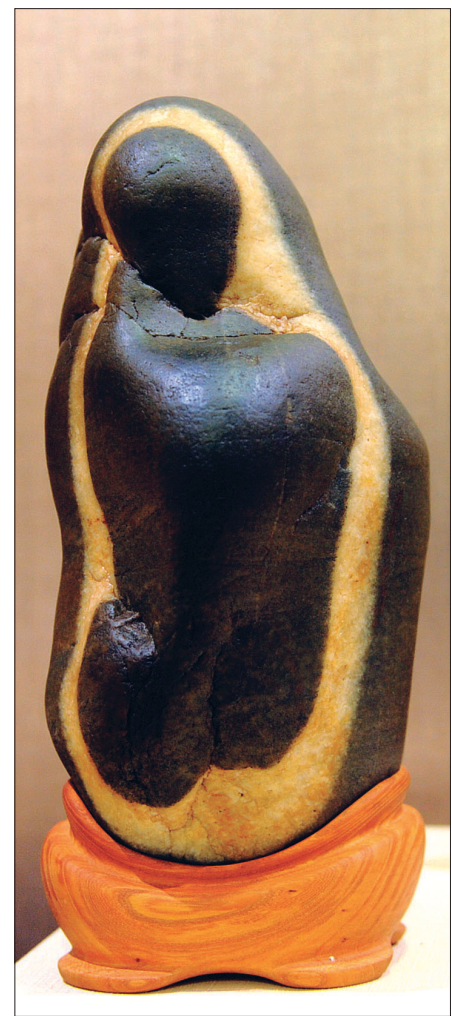


고불총림 백양사 불교 수석 전시관 '학봉 선석원'을 가다



고불총림 방장 지선 스님이 백양사 경내의 '학봉 선석원'을 둘러보고 있다. 이 전시관에는 '나한상'을 테마로한 약 550여 점의 수석이 전시돼 있다.



선재동자가 공양을 올리는 듯한 모습을 담고 있다.



달마대사의 모습을 지닌 무늬돌



가사입은 스님의 모습을 담은 수석



고불총림 장성 백양사 경내에 지난 4월 개관한 '학봉 선석원' 외부 전경.



돌이 전하는 <금강경>의 일원상



절물하고있는 모습이 담겨있다.

“수석과 수행은 결코 돌이 아니다”

石中禪理(석중선리)
수석 가운데 선의 이치가 있어
巖山談禪(연산담선)
산을 거닐며 선을 말하고
繞江論石(요강논석)
강가를 노닐면서 돌을 논한다.
以石爲師(이석위사)
그러므로 한점 돌은 나의 스승이 된다.

如何是名石(여하시명석)
어떤 돌이 명석인가?
性海湧出石(성해융출석)
성품의 바다에서 돌이 솟구친다.
壽石衆藝之妙(수석중예지묘)
수석은 예술의 오탁한 이치 들어있다.

五百羅漢石無言(오백로한석무언)
오백개 라한석의 말없음이며
不如維摩士一默(부여유마사일묵)
유마거사 한분의 말없음만 못하네.
<수석 전시, 지선 스님 글>

“달마와 나한상” 등 불교를 테마로 하는 ‘불교수석 전시관’이 사찰 경내에 최초로 건립돼 화제다.
고불총림 전남 장성 백양사(주지 진우)는 성보박물관내에 별도의 공간인 ‘백양사 학봉 선석원’을 지난 4월에 개관했다.
국내 사찰에서는 처음으로 설립된 ‘학봉 선석원’은 100여 평 규모의 전시실에 ‘오백 나한상’이 상설 전시되고 있다. 전시관 이름의 ‘학봉’은 고불총림 방장인 지선 스님(知諱)의 호이다. 40여 년간 1천여점의 달마석과 사유석 등을 수집한 지선 스님은 ‘나한상’을 테마로한 수석 작품 약 550여 점을 일반에 선보였다. 지선 스님이 처음 수석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연유는 이렇다. 천지이론과 산천 정기가 왜 하필이면 불교의 깨달음, 도에 관한 형상이나 문양 및 의미 등이 담긴 돌들을 자연스럽게 많이 만들어 냈을까 하는 화두에 천착하면서 부터다.
지선 스님은 “물아일체라 하지만 두두물물이 이화같이 법신의 화연으로 무정물물까지도 유정물물을 각성시키는 상호연기적 관계에 있다는 점 때문에 나도 돌이 되고 돌도 내가 되는 수없는 깨달음을 주고

받으며 돌에서도 법을 구할 수 있었다”고 그간의 수집 과정을 회고했다.
그간 지선 스님이 불교 수석을 위해서 들인 노력은 구도역정과 같다. 국내에서는 남한강 한탄강 경호강 섬진강 제석산 지리산 등의 내륙 산지와 제주도 태종대 거제도 임자도 등 큰 섬은 물론 풍도 호도 등 이름도 의 할머니는 허리가 아플때마다 손자인 지선 스님에게 갖가지 돌을 주워오도록 시켰다. 할머니는 그 돌들을 가마솥에 삶아 우려낸 물을 마시고, 목욕도 하셨다. 어린 손자였던 지선 스님은 돌을 줘다가 모양이나 문양이 독특한 것들은 마당 한켠에 진열해 놓았다. 그것이 돌 수집의 시초다.
이후 지금부터 30여 년 전, 그 어린 소년은 어느덧 자라 출가를 하고 전남 영광 불갑사 주지가 됐다. 수행자로 생활하던중 어느 날 바닷가서 우연히 돌을 보게 됐다. 절 마당은 물론 지천에 깔린 것이 돌이었지만 그날 지선 스님이 바라본 돌은 어렸을 적 냇가에 가서 할머니 심부름으로 주워오던

의 할머니는 허리가 아플때마다 손자인 지선 스님에게 갖가지 돌을 주워오도록 시켰다. 할머니는 그 돌들을 가마솥에 삶아 우려낸 물을 마시고, 목욕도 하셨다. 어린 손자였던 지선 스님은 돌을 줘다가 모양이나 문양이 독특한 것들은 마당 한켠에 진열해 놓았다. 그것이 돌 수집의 시초다.
이후 지금부터 30여 년 전, 그 어린 소년은 어느덧 자라 출가를 하고 전남 영광 불갑사 주지가 됐다. 수행자로 생활하던중 어느 날 바닷가서 우연히 돌을 보게 됐다. 절 마당은 물론 지천에 깔린 것이 돌이었지만 그날 지선 스님이 바라본 돌은 어렸을 적 냇가에 가서 할머니 심부름으로 주워오던

추억 어린 돌들을 연상케 했다. 순간 선방서 참선 하는 것처럼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 후 주지로서 절을 운영하면서 사중에 문제가 생기거나 수행에 장애가 생길때마다 강과 바다로 팔을 걷고 나섰다. 이것이 지선 스님이 오늘날 1천여점에 가까운 달마석을 본격적으로 수집할 수 있었던 첫 시발점이었다.
“수석은 위대한 자연이 만든 예술입니다. 풍마우세(風磨雨洗)를 겪은 수석은 유달리 달마, 관음상 등 우리 불교와 관련된 것이 많지요. 수석 채집에 앞서 강가의 바위에 앉아 참선에 들면 수많은 돌들이 모두 저에게는 선승으로 보입니다. 제가 나지막히 엮음하면 돌들도 따라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달마석을 만나고 부처석도 친견하면 시간가는 줄 모르고 법을 청해드립니다. 바로 달마석 삼매경에서 이어지는 ‘선석일여(禪石一如)의 경지이지요. 수행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정물이라도 수많은 세월동안 한 곳에 앉아 가부좌를 틀고 세월의 풍파를 견디어 낸다면 그것도 수행인 것이지요. 왜 우리가 오죽하면 화두에 빠지듯 무슨일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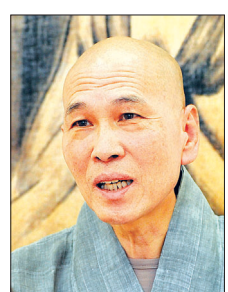
물두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을 돌부처라 하지 않습니까?”
지선 스님의 수석은 부처, 달마, 나한상 등의 형태를 갖춘 형상석과 무늬가 새겨진 무늬석이 주류를 이룬다. 이번에 선보이는 수석 말고도 대략 1천여 점에 넘는 수석이 ‘선석원’ 뒤편 수장고와 지선 스님이 자주 주석하시는 광주 문빈정사에 빼곡히 쌓여있다.
지선 스님은 “수석과 수행”을 돌로 보지 않는다. 그렇지만 수석에 대한 집착은 강력하게 경계한다.
“수행자가 무소유로 살아야 하는데 좋은 것을 곁에 두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서 걸리고 집착이 생기더군요. 재야활동하면서는 더더욱 시간을 내기 어려워 본의 아니게 몇 년 쉬었습니다. 수석을 놓고 보니 ‘돌(石)-도(道)-돈(金)-독(毒)’의 이치가 보이더군요. 잘하면 도를 알지만 잘못하면 돌이 돈이 되고, 독이 됩니다.”
지선 스님의 이런 열정과 구도정신으로 선보인 백양사 ‘학봉 선석원’은 21세기 산중불교가 나아가갈 혁신적 문화콘텐츠를 제공한 신선한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장성 백양사=김주일 기자

백양사, ‘달마와 나한상’ 등 불교 테마 수석관 건립
‘학봉 선석원’ 4월 개관... 550여점 일반에 공개
국내는 물론 세계 10여개국서 수집 및 기증받아
산중불교가 나아가갈 신선한 문화 콘텐츠로 기대돼

인터뷰

‘달마석’ 無言 법문에 귀기울여 보세요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지선 스님
“인류가 처음 접한 것이 돌입니다. 돌은 신앙의 대상이자 생활도구였고, 죽어서는 사후의 안식처였습니다. 특히 석탑, 석등, 마애불 등 문화유산의 꽃을 피운 불교는 돌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애석(愛石)에 관한 우리나라 최초의 인물 기록은 <삼국유사>에 나오는 승전 법사(勝詮法師)입니다. <삼국유사>를 보면 당나라에서 <화엄경>을 공부한 신라 승전 법사가 만경사에서 80여 개의 돌을 모아놓고 경전을 강독하며 아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승전 법사의 경전강독을 들던 돌에서 꽃이 피었고 지금도 금오산에서는 ‘매화석’이 나온다고 합니다.”
지선 방장 스님은 “예부터 스님들은 수석(壽石)보다 한결을 더 나아가 선석(禪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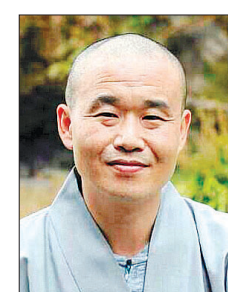


이러하여 돌에서 법을 구했다”며 ‘불교의 수석관’을 역설한다. 그동안 스님은 53선지석을 찾아 구법 만행에 나선 선재동자처럼 ‘돌(石) 선지석’을 찾아 국내외 산과 강, 바다를 구석구석 찾아 ‘수석만행(壽石漫行)’에 나섰다.
이렇게 만난 달마석들이 삼삼오오 백양사 ‘선석원’에 모여 전시관을 이룬 것이다. 이들중에는 예술적으로나 경제적 가치가 큰 수석들이 있음에도 지선 스님은 굳이 수석전시회 등에 출품하거나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 수행자이다보니 수행과 관련된 일에는 진력한다는 주위의 따가운 시선이 솔직히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었기 때

문이다.
하지만 지선 스님은 “돌을 수집하다보니 이 일도 수행의 연장이고 방편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숨겨거나 드러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으며, 사찰도 이제는 아름다운 자연풍광만 보여줄 것이 아니라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서비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수석전시관을 만들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리고 스님은 덧붙였다. “백양사에 오시면 꼭 선석원 달마석 앞에서 보세요. 선지석들에게 듣는 법문 못지않게 심오한 달마석이 들려주는 무언의 법문이 마음의 풍진을 씻어주고 편안하게 해줄 것입니다. 또한 국내외 각지에서 수집한 수석을 보면 자연의 경이로움에 감탄사가 절로 솟구침을 느낄 것입니다.”
김주일 기자 kimj4217@hyunbul.com

“스토리텔링 있는 불교수석관 만들 것”

백양사 성보박물관장 법선 스님
“수석은 두 손으로 들 수 있는 작은 돌에 삼라만상의 여러 형상이 집약돼 상징적으로 축소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같은 돌이라도 보석, 화석, 진기석, 석공예와는 구별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석은 자연의 수려한 경치가 돌에 축소된 산수경석(山水景石), 사람이나 동물, 집 등 물체를 담은 형상석(形象石), 돌표면에 기묘한 문양이 새겨진 무늬석 등으로 구분되지요. 백양사 선석원에 전시된 돌들은 이들중 가치가 높고 희귀한 형상석과 무늬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법선 스님은 은사인 지선 방장 스님과 함께 수석 수집을 하면서 우여곡절도 참 많았다. “돌이 무겁다 보니까 국내로 들어오는



운반 과정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 래도 국내는 차를 이용하다보니까 수월했지만, 해외서 수집한 돌을 국내로 갖고 들어오는 일이 어려웠습니다. 때로는 밀반출자로 오인돼 공항서 조사를 받기도 했고 운반하다가 돌이 무겁다 보니 운반과정에서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수행이라고 생각하며 방장 스님과 함께 불교의 교리적 가르침이나 수행의 형상이 녹아있는 수석들이 있는 곳이면 아무리 먼 곳이라도 마다 하지 않았습니다. 이 선석원은 그간의 피와 땀이 서려있는 결정체들의 집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김주일 기자

실제로 선석원에 들어가 관람하다보면 자주 놀란다. 영락없는 ‘달마’가 있는가 하면 ‘불자를 괴고서 졸고 있는 노승’도 있다. 또한 부처님의 고행을 상징하는 골석도 전시돼 있다.
갓까지 다른 달마나 나한상이 자연석에 들어있는 수석을 마주 대하면 경배심에 합장반배가 저절로 나온다.
법선 스님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시실 조명이든지, 각 수석마다의 자세한 설명안내판 등 보완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지자체와 논의중인데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선석원 안에 조그만 기도공간 마련 등 관람객들이 기도도 수석 관람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신형 공간은 물론 스토리를 통해 수석을 만끽할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라고 계획을 밝혔다.
김주일 기자